

13. 다시 싱글이 되어 Single Again



결혼한 사람이 과연 다시 싱글로 돌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수년간 다양한 답이 주어졌다. 만약 기혼자들이 다시 싱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전체 인구에서 싱글의 수가 늘어나는 격이 된다.

이혼에 대한 성경말씀

신약과 구약 모두 이혼에 대해서 언급한다. 구약의 신명기 24장 1-4 절에서는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싶은 남자는 아내에게 이혼증서를 써주고 떠나 보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고는 남자와 여자 둘 다 재혼이 가능하였다. 실제로, 그들은 다시 싱글이 되었고, 한가지 제한이 있다면 여자가 재혼을 하고, 다시 이혼을 했을 경우 첫 남편이었던 남자와 재혼할 수 없다.

신약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이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혼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 하셨는데, 불륜일 경우에만 이혼이 허용된다고 말씀하셨다(마5:31-32).
- 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좀 더 설명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신 유일한 이유는 그 부부의 굳은 마음 뿐이라고 대답하셨다. 하지만 이혼은 이뤄지지 말아야 할 것이며, 외도의 경우에만 이혼이 허락되었다(마19:1-12).
- 독신 선교사였던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독교인 부부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하셨다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게 편지를 썼다(고전7:10-14).

그리하여 구약에서 남성 유대인들에게 비교적 쉬웠던 이혼과정이 신약에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제한 되었다. 이혼을 금했던 것은 이후 2000년 동안 기독교에서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로마 가톨릭 교회

여러 세기 동안 미혼 선교사 수녀와 신부를 통해서 전세계적으로 기독교를 퍼뜨렸던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결혼이란 교회의 성스러운 상징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교회는 혼인의 무효선언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이 무효화되는 과정을 뜻했다. 오늘날에 합당한 이혼 사유들은 교회법전(Code of Canon Law)에, 특히 계율 제1083-1107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하여 1500년이 넘도록 크리스천들은 이혼하지 않았다. 혼인의 무효선언은 결혼을 파기시켰던 것이 아니라, '결혼 자체'가 초반부터 무효하다고 선언했고, 그 결혼이 시작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 결혼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마져 있을 수 없는 격이 되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주(州)가 아닌 교회가 결혼을 규제하였으므로 무효선언이 세속적인 시민법과는 별개였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의 초기 개신교

종교개혁에서부터 19세기 전반을 걸쳐, 결혼과 이혼은 교회보다는 정부의 책임으로 더욱 치우치게 되었다. 물론, 목사가 결혼식의 주례를 서는 것은 여전하였으나, 그들은 주(州)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했다.

개신교의 초기에는 믿을 만한 통계자료가 별로 없지만, 이혼이 서서히 받아들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연방 정부는 19세기에 이루어졌던 결혼과 이혼율에 대한 통계를 내고, 평가하기 시작했고, 미국 국세 조사국에서는 『미국 통계초록』(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을 출판하기 시작했다. 아래의 통계는 그 출간물의 여러 간행물에서 가져온 것이다.

1867년에 초판이 출판되었는데, 그 통계에 의하면 당시 이혼 1건당 32건의 결혼이 있었다. 이 비율을 25년마다 살펴보면, 이혼이 서서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1875년까지는 이혼 1건당 30건의 결혼의 비율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면, 1900년이 되어서는 25년 전의 결혼율의 절반인 이혼 1건당 겨우 13건의 결혼이 이뤄졌다.

20세기의 변화

첫째, 이러한 이혼 경향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의 대부분의 시기까지 이어졌다.

- 1875: 이혼 1건당 결혼 30건
- 1900: 이혼 1건당 결혼 13건
- 1925: 이혼 1건당 결혼 7건
- 1950: 이혼 1건당 결혼 4건
- 1975: 이혼 1건당 결혼 2건
- 2000: 이혼 1건당 결혼 2건

둘째, ‘혼인여부’의 의미가 달라졌다. 반드시 사람은 기혼이나 미혼(싱글) 중 하나에 해당된다. 그러나 20세기 중반부터는 ‘싱글’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3가지로 분류되었다. 혼인여부에 대한 질문에 보통 아래와 같은 4가지 선택 사항이 있다:

- 기혼 (현재 배우자가 있음)
- 미혼 (결혼한 적이 없음)
- 이혼 (결혼을 했지만, 현재 이혼했고, 재혼하지 않음)
- 사별 (결혼을 했지만, 배우자가 사망함)

시간이 지날수록 싱글에 대한 분류가 다소 혼해졌고, 국세 조사국이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하려 할 때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는 ‘POSSLQ’ (Persons of the Opposite Sex Sharing Living Quarters, 이성간의 거주공간을 공유하는 개인)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같이 사는 예가 급속도로 늘어, 이를 부르는 표현은 점차 ‘동거’(cohabitated)로 완화되었다.

셋째, 1970년 전에는 부부 중 한 명이 잘못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한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가 외도, 유기, 범죄와 같은 행위로 유죄임을 주장해야 했다. 캘리포니아주의 무죄이혼법(no-fault divorce law)이 1970년부터 시행되었고, 배우자 둘 다 이혼을 원하거나, 그 중 한 명이 ‘타협할 수 없는 차이’(irreconcilable differences)가 있다고 주장할 때, 이혼이 가능했다. 다른 주(州)들도 이어 비슷한 법을 통과시켰다.

그 당시에 ‘싱글’이란 되찾을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다. 결혼을 했고,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더 이상 기혼의 상태가 아니라면, 더 이상 싱글이라고 분류될 수 없었다.

21세기 오늘날

21 세기에 10년 이상을 들여다 봐야 그제서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

첫째, 가장 최근 자료인 2009년도 이혼율이 이혼 1건당 결혼 2건인 것으로 보아 미국의 이혼율이 안정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00년쯤, 국세 조사국에서 미주 전반의 이혼 통계를 보고하지 않기 시작했다. 2000년 이후에 보고된 자료표의 각주에는 “이혼 수치는 캘리포니아, 조지아, 하와이,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미네소타주의 자료를 제외하였다”라고 적혀있다.

둘째, 오늘날에 ‘싱글’이란 어느 누구와도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미국의 국세 조사국에서는 ‘싱글’이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결혼 했든지, 안 했든지 둘 중 하나이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결혼한 적이 없음, 사별, 이혼으로 분류한다.

셋째, 무죄 이혼법이 50개주 전부와 워싱턴 DC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을 통과시킨 가장 마지막 주는 뉴욕주였는데, 2010년에 통과시켰다.

결과

두 세기 동안의 이혼율의 변화와 ‘싱글’에 대한 정의의 변화로 인해, 미혼인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늘었다.

첫째, 2009년에 2,077,000건의 결혼이 있었으므로, 약 백만 건의 이혼이 있었을 것이다. 각 이혼은 두 명의 싱글을 만들기 때문에, 매년 2백만명 넘는 싱글들이 인구에 더해졌다. 그리고 이 현상은 매년 일어났다(주의: 이 자료는 첫 결혼의 반이 이혼에 이른다는 것을 암시하지는 않는다. 매해 결혼하는 사람들의 40%가 이미 결혼과 이혼을 적어도 한번은 경험하였으며, 이혼을 많이 했던 사람일수록 다시 이혼을 할 확률이 높다).

둘째, 결혼에 비해 늘고 있는 이혼 수는 청소년기가 생기고, 중매결혼이 사라진다고 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실 반대의 경우도 많다. 청소년기가 생겨난 때에 이혼율이 감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증가했다.

셋째, 이혼을 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도 다시 ‘싱글’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는 실제 싱글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자면, 싱글로 분류되게 된 사람들의 수가 서서히 증가하는 것이다. 실제로 2007년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에서는 미혼(한번도 결혼해본 적이 없는 사람), 이혼, 사별 모두 합했을 때의 인구가 결혼한 사람의 수보다 컸다. 아직 미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현재의 경향이 지속된다면, 곧 미국에서도 싱글 성인들이 결혼한 성인보다 많을 것이다.

넷째, 이제 모든 주에 무죄 이혼법이 있기 때문에, 이혼사례가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 수가 늘어날지는 장담할 수 없다. 『미국 통계초록(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에 한 세기 이상 결혼과 이혼의 수를 출판한 이후, 국세 조사국은 이제 결혼의 수만 공개하고, 이혼수는 NA(not available, 제공되지 않음)로 기재된다. 1998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작하여 다른 여러 주(콜로라도,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하와이 등)에서는 이혼의 수를 제공하지 않았다. 흥미롭게도 이혼하는 수를 제공하지 않는 이 주들은 인구가 가장 많은 주들이며, 무죄 이혼법을 가장 먼저 통과시킨 주들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죄 이혼법이 적용되므로, 우리는 마치 모세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신 24:1)라고 썼던 것처럼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다. 큰 차이가 있다면 오늘날에는 여자도 이와 같은 행동을 결혼한 남편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브로셔는 저자 로날드 코테스키 박사의 원문(Ronald Koteskey: www.missionarycare.com)을 저자의 승인 하에 올네이션스선교센터(www.anmcusa.org)에서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판권은 올네이션스선교센터에 있습니다.